

나실인의 삶 I.

인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파괴되는 성경의 가치들

1. 거룩과 정결의 삶

(1) 시대와 말씀

교회와 성도가 가장 중심 두어야 할 일은 '말씀'의 성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다. 언약의 속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언약)에 절대적 '권위'를 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늘과 땅에 선포된 모든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

[요한계시록 22:18-19]

18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19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 나무와 그 기록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증언되었다. (일점일획도 덧붙이거나 없앨 수 없다)

[에베소서 1:10]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타락한 땅과 죄인들에게 선포적으로 이미 완성되었다. 여기서의 완성이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가상철언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한 완성의 과정 중에 있다. 이 과정의 끝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완성된다.

그렇다면 다시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신부'로 묘사되어 있다. 많은 정체성 중에 왜 신부라 표현되었는가? 이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할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다시오실 주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업적과 성과'가 아니다. 신부가 기다리는 분은 오직 신랑 한 분이다. 신랑을 위해 신부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정결'과 '순결'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다. 거룩은 구별의 뜻이다. 구별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준비 되었을 때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부분은 '정결과 순결의 삶', 즉 거룩의 삶이다.

(2) 시대적 저항

[요한계시록 17:1-2, 5]

1 대접 일곱 개를 가진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 주겠다.

2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5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대적하며,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권세를 행하고 있는 사탄의 정체가 '음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다.

*** '창녀'**

1절 - 창녀가 받을 심판

2절 -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함.

5절 -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큰 바빌론.

마지막 때 가장 강력히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영성은 바로 '음행'이다. 음행한 자, 음녀의 정의는 무엇인가? 신랑이 없다는 것이다. 욕망대로 산다는 것이다. 음행이란 잠자리의 상대가 여러명이라는 것이다. 신랑은 오직 '하나'이다. 그러므로 음행의 세대란, 신랑이 없는 세대를 말한다.

오늘날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급속하게 '거룩과 성결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한 모든 진리의 해체와 재설정을 통해, 지금까지 인류에게 있었던 보편적 가치들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자유'라는 키워드가 있다. 결국 진리가 없는 세대들이 갈망하는 것은 '자유'이다. 자유를 찾기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자유의 중심이 '나의 본능과 욕구'이다. 나를 구속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자기 욕구의 실현이 중요하다. 그 욕구가 실현된 '자아'가 자유안에 있는 진정한 자아가 된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벽들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3) 인간의 자유가 중심이 된 보편적 가치의 세상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파괴가 그 중심이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말한다 (죄의 본성).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가 전세계에 확산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그 때는 부부, 가정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정의 될 수도 있다. 그런 세상에서 신랑 한 분을 위한 '거룩과 정결'이라는 키워드는 무의미하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을 잊지마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통제불능의 무질서 상태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6: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본능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이다 -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적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 앞에 두신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돕는 신부라는 사실을 한 번에 알아본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 (본능에 이끌린 선택)가 아니다)

(4) 본능에 대한 오해

그렇다면 본능을 주신 분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본능을 통제하시는 분처럼 생각하게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을 존중하신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본능이 아니다. 사람은 '함께사는 존재'이다.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좋지만 상대방의 본능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능이 가장 아름다운 본능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 안전한 울타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본능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선악과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다 (자유의지에 대한 시험). 그 목표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임을 명심하자.

2. 나실인의 삶 - 거룩을 향한 자원하는 신앙

[민수기 6:1-8]

-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 3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낱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 4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 5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 6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 7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에라도, 그들의 주검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8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성경에 나실인의 언약이 있다.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율법이 아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주님께 헌신하는 특별한 서약을 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오직 주님께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이다 (8절).

율법적 성결이 아니다. 오직 한 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다. 이 사랑의 서약이 나실인의 서약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거룩한 세대로, 교회로, 준비되어야 한다. '고귀함, 존귀함, 위대한 가치'를 버리지 마라. 싸구려 가치들과 교환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자. 그 분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의 싸구려 가치들로 바꾸지 말자.

자원하여 일어나자. 거룩함을 향한 갈망!!